| 현불 논단 |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며칠 전 참석한 동료의 결혼식
결혼은 삶속 가장 행복한 의례
불교서 애착 · 구속으로 여겨져
완전한 깨달음 방해요소로 평가

부처님 본생담 · 반야부 경전엔
결혼은 수행 완성 돕는 요소
수메다 행자와 상제보살이 예
배우자는 세세생생 나의 도반

며칠 전 함께 일하는 동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늘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새하얀 드레스에 고운 신부화장을 한 모습을 보니 괜히 내 맘이 다 설레었다. 신부도 신부지만, 사랑하는 딸을 품에서 내놓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신부 아버지의 애틋한 표정도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려거나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은 쉬지 않고 들려오지만, 그래도 결혼 적령기 신랑신부 친구들의 들뜬 모습에서 여전히 결혼은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화려한 의례가 아닐까 싶다.

불교계에 몸을 담고서 경전을 읽고 강의를 해오는 내 입장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과, 세속을 뛰어넘은 수행의 차원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야 사랑하는 이와 맺어지는 결혼은 행복이다. 하지만 구도의 길에 나선 이들에게 그 도탑고 아름다운 인연은 또 다른 애착과 구속으로 여겨져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수행의 길에 나선 구도자에게 이성과의 만남은 치명적이다. 특히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자로 여성들이 그 악역을 많이 맡고 있어 종종 '마구니'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인 아뇩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기 위해 세세생생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저앉는단 말인가.

하여 결혼이란, 종교에서는(적어도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100% 축하해주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의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이나 반야부 경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행을 완성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오래 전 수메다 행자 시절을 떠올려보자. 연등부처님에게 나아가려 하니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꽃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단 한 송이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장면이 있다. 그때 그에게 꽃을 내미는 이가 있으니 그녀가 바로 수밋다(구리여인)이다. 수밋다의 등장과 도움으로 수메다 행자는 연등불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급기야 장차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는 수기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두 사람은 세세생생 부부가 되고, 결혼 후에 남편은 출가하지만 아내 역시 그 뒤를 따라 수행하게 되니, 이들이 바로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이다.

반야부 경전의 최초경전이라 하는 〈팔천송 반야경〉에 등장하는 상제보살은 어떤가. 자신에게 반야바라밀다를 들려줄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나섰다가 마침내 스승이 살고 있는 성 앞까지 왔을 때, 가난한 그에게는 스승에게 공양 올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 몸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다는 구도심을 품은 그를 도우려고 나선 이는 어느 장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상제보살에게 주어서 스승에게 공양 올릴 수 있도록 도우며, 그녀 스스로도 스승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듣기를 발원한다. 장자의 딸이 도와준 덕분에 상제보살은 그토록 원했던 스승에게서 반야바라밀다를 듣게 되며, 그녀는 제 부모와 자기를 따르는 하녀 500명 모두와 함께 발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수메다 행자와 상제보살 이야기를 음미할 때마다 구도자에게 이성은 어떤 존재이며 결혼은 보살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결혼은 나의 보살행을 완성할 수 있는 화룡점정의 의례요, 배우자는 세세생생 나의 도반이라고. 그러니 어찌 결혼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을까.

社 說

승가교육기관 개편,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이 승가교육 내실화를 교육 종책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진우 스님은 10월 8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가교육 종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스님은 승가교육 내실화 과제 중 기관 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승가교육 기관 정비는 현재 조계종 승가교육 종책 분야의 최대 현안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지했던 한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와 올해는 120명 선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20명 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문제는 감소 속도다. 200명에서 150명 선으로 무너지는 데 3년이 걸렸지만, 150명 선이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향후 3~5년 안에는 한해 출가자 100명도 모집하기 어렵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등으로 17곳이다. 이중 상당수의 기관이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본교육기관 수는 연간 출가자가 3~4배 많았던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향후 한해 출가자 100명 유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현행 교육기관 수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질의 출가자' 양성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든 종도가 고민해봐야 한다.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기관 조정을 본사와 교육현장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제 종단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출가 문화를 정립하고, 승가교육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똘레랑스'와 종교평화

2016년 1월 17일 밤,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에서 충격적인 훼불사건이 벌어졌다. 개신교신자를 자처한 60대 남성이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고, 향로와 목탁 등 법구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절도 성당도 미신이고 우상숭배이기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결국 경찰에 인계됐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사찰이 떠안았다.

이때 한 신학대 교수가 이 같은 훼불행위에 대신 사과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훼불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운사를 돕기 위해 모연활동을 펼쳐 대중으로부터 '종교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참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다.

하지만 이런 손 교수에게 학교 측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은 훼불행위에서 사학의 부당한 징계로 옮겨갔다. 2017년 2월 20일 파면 처분을 받은 손 교수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굴하지 않고 학교 측과 지난한 파면 무효확인소송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10일 1심에 이어 2심도 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한 징계임을 확인하고, 파면 취소를 결정했다.

남은 것은 서울기독대의 결정뿐이다. 대법원까지 항소하며 다시 버틸 것인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를 복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다시 항소한다면 대학을 향한 세간의 여론은 지금보다 더 싸늘해질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 측은 똘레랑스의 참 의미를 되새겨 손 교수의 복직을 결정하기 바란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뉴미디어 생존 무기 '저널리즘'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016년 3월 26일 자 발행 신문에 쓴 문구다.

1986년 창간한 인디펜던트 대표적인 고급일간지로 평가 받았지만 영국 언론 중 처음으로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하는 주인공이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낸 '신문 인쇄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Future Exploration Network의 신문 전망 연표를 소개했다. 여기서는 뉴스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끝나는 이른바 '신문 종말 시점'을 2026년으로 예견했다.

2026년. 신문은 과연 사망할까. 흔히 일반사회에 비해 10년이 늦다는 불교계에서도 신문의 위기는 체감이 된다. 불교계 신문에서 청년기자들은 이제 손꼽히는 수준만 남아있다.

뉴미디어의 시대, 신문의 위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호하는 매체가 변화하며 외면받는 매체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신문이 담당해 온 역할만큼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신문의 위기가 계속 거론되는 건 아닐까. 신문은 각 현안에 대해 이른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신문의 위기는 이런 신뢰가 위기에 처한 부분도 존재한다.

뉴미디어 시대 대표적인 매체로 유튜브가 꼽힌다. 전 연령 세대에 있어 스마트 앱 중 월등한 사용율을 자랑한다. 유튜브의 인기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편리성과 함께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그중 이른바 '가짜뉴스'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킨다는 점이 있다. 최근 연세대가 성인 1300여명을 상대로 뉴스 인식조사를 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출처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튜브의 장점 중 하나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한쪽 주장만을 반복 노출시킨다는 점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언론사 브랜드 신뢰도 점수에 JTBC, YTN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조중동, 한경 등 이른바 메이저 신문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신문의 위기는 신문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신뢰의 하락에서도 초래하고 있다.

위 순위는 유튜브 속 기성 미디어 채널의 선호도 순위와도 일치한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신문사에 비해 유리한 방송사의 역량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파적 치우침에 따른 신문 브랜드의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크다.

불교계 방송에 이어 최근 불교계 신문은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계는 일반사회에 비해 갈등 현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신문들이 걸어온 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아남는 시대, 불교계 신문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 정확하고,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즘만이 신문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뉴미디어 시대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무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부평리)
전화 : 031-527-1956, 1950~3
팩스 : 031-527-1958
템플스테이 : 031-527-9969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스님
이웃과 함께, 자비나눔 취임법회

불기 2563(2019)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_식전행사 / 3시_취임법회
봉선사 큰법당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광릉 숲의 단풍, 가을바람에 울려 퍼지는
봉선도량의 풍경소리와 국화향기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힘입어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스님의 취임법회(진산식)를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 나눔의 법석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도량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잠시 바쁜걸음 멈추시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16대교구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합장

이번 제16대 교구장취임법회는 우리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화환이나 화분 등의 축하용품은 정중히 사절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비의 쌀과 김장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자비나눔 동참금 : 쌀 20Kg 1포 1구좌 10만원
  김장10Kg 1박스 1구좌 10만원
- 자비나눔 계좌 : 우리은행 1006-301-373259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 문의 : 031-527-1956, 1951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 자비나눔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소형 축하만장에 적어 행사장을 장엄하게 되며, 모아진 자비나눔 쌀과 김장은 교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동참하신 분의 고귀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함이 부착되어 전달됩니다.